

목포~상하이 카페리 운항 재개될까

市, 두차례 중단 사유 철저 분석 등 8월까지 타당성 조사

전남도와 합동 지원안 마련

지난 2002년과 2006년 두 차례 중단됐던 목포~상하이(上海)간 카페리 항로가 다시 열릴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목포시가 목포~중국 간 카페리 항로 재개를 위한 용역을 추진한다.

목포시는 “목포~중국간 카페리 항로 개설 타당성 조사 및 지원 방안 연구에 대해 목포해양대와 계약을 체결, 오는 8월까지 6개월간 용역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용역에서 시는 과거 두 차례 항로 운항 중단 사유를 집중 분석해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 중국 기항지로 상하이항 뿐만 아니라 태창항을 새로 추가해 투입 선박의 규모와 카페리 화물 여객·수요도 함께 추정하고, 국제여객선 터미널 및 목포 신항 활용방안 등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카페리 운항에 지역기업이나 전남개발공사 등이 참여방안도 연구 대상이다.

특히 시는 손실 보전금 지원과 관련 국내 보전금 지원 현황과 사례를 조사해 타당성을 분석 한 뒤 적정 규모와 지원 형태 등도 용역 과제에 포함시켰다.

시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전남도와 합동으로 3년 동안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선사를 유치해 목포~중국 간 국제항로 운항을 재개할 방침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현재 지역연고 선사인 씨월드 고속페리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면서 “대중국항로가 재개

되면 양국 도시간 인적·물적 지원교류가 촉진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광양항과 일본 시모노세키항 등을 잇는 국제 카페리도 일본을 갈타한 강진과 쓰나미 여파로 여행객이 급감, 휴항을 거듭하면서 운항 1년여 만에 50억 원대의 적자가 발생해 존폐 위기에 처하는 등 국내의 여건이 여의치 않아 항로 재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서부취재본부=임영춘기자 lyc@

‘하늘광대 예술촌’ 초청 화순, 줄타기 공연 선택

화순군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화바우처’ 기획사업 일환으로 ‘하늘광대 예술촌’을 초청해 전통 줄타기 공연을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16일 오후 2시 나드리 복지관을 시작으로 관내 복지시설을 순회하며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하늘광대 예술촌’의 전통 줄타기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선정된 한국 전통 줄타기와 새로운 기예공연이 만나는 새로운 시각의 공연이다. 특히 영화 ‘왕의 남자’에서 선보였던 광대 줄타기를 비롯해 마술·무용·서커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중부취재본부=조성수기자 css@



강진만 겨울진객 크고니
꽃샘추위가 찾아온 12일 강진군 칠량면 강진만 바닷가에서 겨울진객(珍客) 크고니(천연기념물 제 201호)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크고니류는 강진만 등지에서 월동한후 봄이 되면 시베리아로 되돌아간다. (강진군 제공)

■ 새 얼굴

“조합원 의사결정협의회 만들것”

김 봉 술 신안농협 조합장



“농협 조합원들의 의사결정협의회 구성과 함께 다수의 유통업체를 확보, 판매사업 활성화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최근 취임한 김봉술(61) 신안농협 조합장은 “조합원과 고통을 나누고, 상호금융 대출금의 금리 인하 사업에 주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 “조합원 복지향상과 우리 고장을 알리는 농협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안군 자은면 출신인 김 조합

장은 목포과대학을 졸업했으며 지난 1975년 농협에 입사해 2007년 상무로 퇴직하기까지 32년간 농협에서 근무했다.

김 조합장은 지난 2012년 1월 11일 후보자 3명이 출마한 조합장 선거에서 940표를 얻어 당선됐다. /서부취재본부=조원민기자 wncho@

해남군 ‘새끼우렁이 농법’ 지원

9300ha 공급 추진

해남군은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해 ‘새끼우렁이 농법’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군은 올해 9300ha에 새끼우렁이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1차 대상지(258개소 8887ha)를 선정하는데 이어 15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를 통해 추가 신청을 받고 있다. 군은 오는 2015년말 저농약 인증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제조제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 새끼우렁이를 활용해 제조효과를 높여 나갈 계획으로, 10a당 새끼우렁이 1.2kg(1200마리)을 지원한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증한 결과 새끼우렁이 농법은 피, 물 달걀, 외풍류 등 일반 제조제에 내성을 갖고 있는 슈퍼잡초까지 제거하는 등 40~50%이상 제조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씨래질 직후 눈에 새끼우렁이를 넣어주면 99% 이상 제조효과가 있어 노동력 절감과 함께 일반제조제 대비 비용절감 등 1석3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한편 해남지역은 저농약이상 친환경 경 면적이 1만4000ha로 전국 11만 4500ha의 12%(전남의 21%·군 경지면적의 42% 인증)로 명실상부 친환경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농촌사랑·농산물 판매 앞장

‘108산사 순례기도회’ 호응

전남농협, 흥국사서 66회 기도회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조영조)가 지난 2008년부터 지역 사찰과 연계한 ‘108산사 순례기도회’를 통해 농촌사랑운동 확산과 농산물 구매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호응을 얻고 있다.

전남농협과 농협 여주시지부, 여수 관내농협은 지난 8~10일 여수 흥국사에서 66회째 순례기도회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농촌사랑 홍보대사인 도선사 주지 혜자스님과 5000여명의 순례 기도단이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여수에서 생산되는 멸치와 다시마·미역·갯감치, 고들빼기 등 다양한 농·특산물을 판매하

고, 베트남·태국 출신 다문화 가정과 인연맺기를 했다. 조영조 전남지역본부장은 “불교계가 농촌사랑운동에 적극 동참하며 어려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된 ‘108산사 순례기도회’는 108개소 산사를 찾아 108배를 하면서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과 다문화가정 인연맺기 사업을 함께 펼치고 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농작물 재해보험 신청하세요

전남도, 35개 품목 확정

가입 시기 품목별 달라

전남도는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35개 품목을 확정하고 벼를 시작으로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도내 전 지역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품목은 사과·배·복숭아·포도·감귤·단감·곶감·참다래·자두·콩·가을감자·가을양파·벼·고구마·옥수수·밭·마늘·매실 등 18개다.

주산지 시군에서만 가입할 수 있는 품목은 고추(해남)·시설수박(나주)·시설딸기(담양)·시설오이(순천)·시설꽃고추(나주)·복분자(담양·함평)·참외·대추·토마토·호박·국화·장미·인삼·파프리카·멜론·오디·녹차 등 17개다.

그동안 가입지역을 일부 시군으

■ 재해보험 품목별 가입시기

품목	가입시기
시설수박	11월
사과, 배, 단감, 곶감, 감귤	3.12~4.6
벼	3.12~4.30
고추	4.16~5.25
고구마	5.1~5.31
옥수수	5.1~6.15
밭	4.2~4.27
참다래	6.1~6.29
콩	6.1~7.20
시설딸기	11월
가을감자	9.3~10.12
마늘	10.4~11.30
시설오이	11월
매실, 자두, 복숭아, 양파, 포도, 복분자	11.15~12.7
시설꽃고추, 비닐하우스	11월

로 제한했던 벼·고구마·마늘·매실·옥수수·밭 6개 품목은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됐다.

이들 작물 재배농가는 다음 달 말까지 거주지 시·군청이나 읍·면사무소, 지역농협을 통해 가입하면 된다.

그러나 고구마·콩·마늘·양파·참다래·매실 등 일부 품목은 재배 시기에 맞춰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품목별로 시기를 정해 보험가입 신청을 받는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정부와 도에서 보험료 중 80%를 보조하고 농가는 20%만 부담하며 재해피해로부터 농민들의 재산을 보호하는 지원 사업이다.

지난해 전남지역 1만6686농가에서 2만390ha를 보험에 가입했으며 태풍 등 재해로 인해 농가에 지급된 보험금은 총 308억여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실제 농가들이 부담한 보험료 42억6400만원의 7배에 달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해남에 멋서 은퇴 한인 ‘미국타운’ 조성

형민 오션리조트, 내달 기공

해남군 송지면 통호리 일대에 미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은퇴 한인들을 위한 ‘미국타운’이 조성된다.

(주)형민 오션리조트(대표 이형기)는 지난 2007년 해남군과 투자협정(MOA)을 체결한 이후 지난해 11월 진입로와 주차장, 산책로 등 1차 기반시설을 완료하고 4월부터 본격

적인 사업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형민 오션리조트는 당초 ‘실버 휴양관광 타운’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내 경제여건 등 부동산개발 상황이 어려운 실정에 부딪히며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미국타운’은 해남군 송지면 통호리 산 2-32번지 일원 19만4000여㎡ 부지에 624억원(공공 40억·민자 584

억원)을 투자해 미국타운 주거단지 및 청소년교육관, 콘도, 상가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시행자인 (주)형민 오션리조트는 오는 19일부터 LA와 뉴욕, 워싱턴, 시카고에서 교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갖고 분양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또 (주)형민 오션리조트는 현재 부지내에 모델하우스 2채를 건립하고 있으며, 오는 4월 13일에는 미주 한인들을 초청해 기공식을 가질 예정이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Le 쿠스쿠스 패밀리레스토랑

중이 울리면 따뜻한 음식이 나옵니다.
당신께 드리는 **맛의 사치**

2012년 CUSCUS ART HOUSE

쿠스쿠스 패밀리레스토랑

광주 수완점 광주 신세계점 광주 상무점

062-371-0011 062-360-1981 062-383-3839

쿠스쿠스 광주 수완점
체인점문의 062-371-0011
체인점 지역 대전, 전북, 전남, 광주